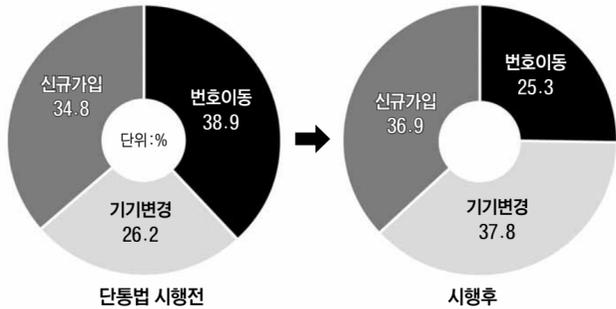


# 단통법 시행 후 달라진 이통시장 기기변경↑ 번호이동↓

■ 유형별 가입자 비중



##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 없어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기기변경 가입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번호이동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유형에 따른 이용자 간 차이를 없애겠다는 제도 도입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이동통신 3사의 유형별 가입자 비중(평균)은 신규가입이 34.8%, 번호이동이 38.9%, 기기변경이 26.2%였다. 번호이동이 가장 많고 기기변경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 것이다.

변화는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부터 나타났다. 10월 이 비중은 신규가입 36.9%, 번호이동 25.3%, 기기변경 37.8%로 바뀌었다.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기기변경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4월 21.2%로 단통법 시행 후 최저점을 찍었다. 같은 달 기기변경 비중은 54.7%에 달해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가입은 24.1%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의 유형별 가입자 비중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잘라 말하긴 힘들지만 4월의 번호이동 비중, 기기변경 비중은 각각 사상 최저치, 사상 최고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에는 번호이동이 24.2%, 기기변경이 48.9%로 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은 늘어나는 추세가 다소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단통법 시행 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꾸준히 30%를 밑돌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월별로 이동사들이 벌이는 각종 행사에 따라 유형별 가입자 비중에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번호이동은 줄고 기기변경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의 효과로 해석한다.

과거에는 이동사들이 가입자 뺏기 경쟁에 몰두하면서 지원금을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몰아줬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들은 지원금 혜택을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번호이동을 했는데 이제는 장기고객으로 남는 기기변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엔 기기변경을 하면 갖고 있던 포인트나 멤버십 혜택 등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며 “최근의 변화는 시장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KT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며 본격화한 요금 경쟁도 단통법의 효과로 보고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과거처럼 언제 갑자기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쏟아야 할지 몰라 이에 대비해야 할 일이 없어졌고,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생긴 여유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통법이 없었다면 앞으로 5년 정도는 도입이 불가능한 요금제였다”며 “단통법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요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실제 금액은 3만원 이상

### 시민단체 “부가세 뺐 줘”

### 방통위 등에 이통3사 신고 방침

휴대전화 요금을 표기할 때 부가세를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이게 하는 이통통신사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뺐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통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통통신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안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줘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조업과 서비

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KT의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편의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쓰는 요금제와 새로 나오는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애플워치 대박조짐...출시전 해외직구 인기

애플의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가 국내에 정식 출시(26일)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를 통해 일찌감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육선은 ‘애플워치 스포츠 38mm·42mm’를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 배송하는 해외직구 상품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2일까지 보름여만에 181개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배송료와 통관 비용을 모

두 포함해 55만원에 판매됐다. 애플워치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밴드, 보호 필름 등 관련 액세서리를 구매하기도 했다.

애플워치는 시계만으로 전화, 문자, 메일, 헬스케어 등 여러 기능의 애플 운영시스템(OS)을 제어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이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어 주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워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메르스 관련 피싱주의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이용한 스미싱 문자와 악성코드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메르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첨부파일을 이용해 문서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며 곧이어 스마트폰 내 기기정보,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주소록에 담긴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피해를 당한다.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위장 악성코드는 감염시킨 PC의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KIS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백신업체(안랩, 이스트소프트, 하우리 등)와 공조해 악성코드를 공유하고 명령제어서버, 정보유출지 차단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금주의 추천앱

카카오톡이 영상통화를 제공하는 ‘페이스톡’ 기능을 추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카카오톡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라운 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요즘,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받는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 행아웃/구글/아이폰,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제작한 메신저 앱이다.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며, 다양한 기기(모바일, 태블릿, 웹 등)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지도 등 구글의 각종 서비스를 사용해 대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 Skype Qik/Skype/아이폰, 안드로이드

Skype Qik은 동영상 클립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는 영상 메신저이다. 그룹을 설정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영상상을 보내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 Tango/Tango/아이폰, 안드로이드

Tango는 영상 및 전화 통화가 가능한 메신저로 오랫동안 전 세계 사용자의 사랑을 받아온 메신저다.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년간 서비스를 진행한 만큼 안정적이고 대화 상대방을 추가하기 용이하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ZOO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 나는 몸신이 **이다**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 / 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